

자본주의 유입 30년... 유목민의 고단한 역사는 현재진행형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79>

9부 몽골·브랏트 편

13 변화 겪는 전통문화

20여개 부족 모여 사는 몽골
전통의상서 젓가락까지 제각각
샤면 신성한 공간 많이 사라져

한국 거주 3만여명 본국 송금액
몽골 GDP 17% 가량 차지
양국 문화교류 위한 기반 튼튼



몽골은 다양한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며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 울란바토르 인근 도로에서 소떼를 몰고 가는 유목민 모습.

몽골=글 오광록·사진 최현배 기자

만남과 헤어짐이 극명한 곳이 초원이다. 가족을 몰고 옮겨 간 곳이 새 거처이며, 이동 과정에 숲한 이별이 존재한다. 어제의 이웃이 내일의 적이 되고, 서로 칼을 겨누던 적도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된다. 유목민의 고단한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브랏트 민족이 그러했듯, 몽골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크게는 중국의 통치를 받는 내몽고 자치구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몽골로 나뉘져 있다. 또 몽골은 할흐, 카자흐, 브랏트계 등 20여 개의 부족이 모여 살고 있고, 이중 할흐족이 대다수(75%)를 차지한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도 몽골 민족은 거주하고 있다.

브랏트 민족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브랏트 민족은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브랏트자치공화국, 몽골 등지에 살고 있다. 한때 브랏트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현재에도 몽골 국가의 일부로 살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몽골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각 부족별 전통 의상이 다르고 상징처럼 차고 다니는 칼과 젓가락의 생김새도 다양하다.

이런 차이로 때론 다투고 때론 융화된다. 몽골의 가장 큰 축제인 나담과 연말씨름대회는 일종의 지역 다툼 성격이 강하다. 어느 지역(부족)의 힘이 가장 강하고 말을 잘 타는지를 겨룬다. 명확히 지역 대표를 뽑고 지역간 경쟁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어느 지역 출신이 우승을 하는

지는 매년 관심사가 된다.

지난해 연말씨름대회에서 현 대통령의 고향 사람이 우승을 했고, 그 지역은 대규모 잔치를 벌였다. 또 지역 상공인들은 해마다 고향 우승자를 위해 돈을 모아 고가의 외제차와 아파트를 선물한다.

이런 차이는 각 민족의 생각에서 더욱 명확히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브랏트자치공화국에 살고 있는 브랏트 민족은 자신들을 몽골의 일부 민족으로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한 때 지배는 받았지만 자신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몽골 사람들도 중국의 내몽고 사람들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미 중국의 문화에 흡수돼 몽골 민족의 전통을 잃어 버렸다고 여긴다.

몽골 문화를 이해할 때 복잡하게 얽힌 부족, 민족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문화와의 교류도 중요한 지점이다.

우선 과거 샤면을 믿었던 몽골은 현재는 대부분 티벳 불교를 신봉한다. 여전히 샤면의 존재는 몽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샤면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이 몽골 각지에 존재하지만 브랏트처럼 광범위하지는 않다.

또 티벳불교와 러시아 문화를 빼놓고 몽골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 한 때 몽골은 티벳 불교 승려를 왕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몽골에는 여전히 티벳 불교 유적과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몽골은 시장경제로의



티벳 불교를 믿고 있지만 몽골 곳곳에는 샤머니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개척 및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문화 전반에 변화를 겪고 있다. 자본의 유입이 가장 큰 영향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몽골인이 귀국하면서 자본주의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몽골 유입 속도도 빠르다. 국내 있는 몽골사람은 3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몽골의 인구 270만명의 약 1%가량이 한국에 있는 셈이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몽골 GDP의

17%를 차지할 정도다. 이 때문에 몽골에서는 심심찮게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몽골 사람들도 많다.

과정이 어떻든, 한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 뼈대가 튼튼해지고 있다. 한민족의 바이칼이 주살이 맞다면, 과거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을 한국과 몽골이 함께 새로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몽골·브랏트편 끝>
/kroh@kwangju.co.kr



칭기즈칸이 금 채찍을 주운 뒤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옛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칭기즈칸의 동상.



몽골 민족시인·작가 후헬바타르

“유목민에게 고향은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몽골의 민족 시인 후헬바타르(60)의 고향은 울란바토르에서 1000km 떨어진 고비알타이다.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지만 한 시도 고향의 하늘과 땅과 강물을 잊은 적 없다. 그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대부분을 작사하기도 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간 몽골 민족이 그가 가사를 쓴 ‘달처럼 먼 고향’에 열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의 시와 노래에는 ‘몽골의 정서’가 담겨 있다.

이 가사를 쓸 때도 그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미국에 거주하던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이 노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많은 몽골인이 고향

“어머니와 고향 생각하는 마음 몽골과 한국 속 닮아”

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몽골인의 향수를 달래주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스위스의 한 식당을 찾았던 그는 우연히 이 노래를 담은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게 됐다. 휴대전화 주인은 당연히 몽골인이었고, 서로는 부둥켜안고 ‘달처럼 먼 고향’을 따라붙었다.

“노래에는 한 민족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고, 그들의 간절함이 스미게 되고 꿈이 결들여져요.”

몽골 가수 중 그에게 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몽골 음악계의 대부다. 그가 쓴 400여곡의 대부분은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다. 고향을 등지고 각지를 떠돌아야 하는 유목민에게 그의 노래는 위안이며 희망이다.

“몽골 시인 중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곳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은 환경의 소중함으로 연결된다. 그가 발표한 노래 중 ‘지구는 나의 어머니’란 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듯 지구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시와 노래는 몽골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노래가 ‘태양의 왕 아이들’이다. 이 노래는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모든 것이 살 수 없듯이 아이들은 ‘태양 왕’처럼 소중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는 지난 2002년 유네스코 아이들 노래 대회에서 상을 받아 유네스코에서 한 참 동안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의 정서가 같다고 주장한다.

“몽골비사 시승늑대가 바이칼을 건너고 몽골인이 태어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도 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생김새 뿐 아니라 어머니와 고향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닮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지구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으로 이어져야 하며, 한국과 몽골이 문화 교류를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그는 ‘울란바토르소식’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전문 학교인 투게리대학을 설립했다. 현재 몽골저작권협회(moscap) 부회장을 맡아 몽골 문화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kroh@kwangju.co.kr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바다 앞 프리미엄 수익형 호텔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 가치가 펼쳐집니다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상록회관-리베스타웨딩을 옆)

분양문의

1600-2949

-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 2 **계약시부터 계약금×연 5% 수익지급**
- 3 **연 10일 무료숙박** (성수기 2일/비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취득되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사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